



이기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자화상:원정출산

서지영/코리아타임스 기자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이기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병폐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름하여 원정출산. 한국의 산모들이 자녀들에게 미국국적을 주기 위해 미국이나 미국령에 속한 국가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는 신종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속지(屬地)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국영토 내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기타 다른 상황을 불문하고 시민권을 조건 없이 주고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수의 산모들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발 빠르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현지 병원들의 특화된 진료프로그램이나 여행상품 패키지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싼 병원비, 체류비, 비행기삿 등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이 들지만, 이들은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만18세가 되기 이전까지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여권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는데, 미국의 국적을 가질 경우 현지에서 각종 연수프로그램 등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유학이나 가족이민을 추진할 때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자일 경우에는 원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가도 된다니,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나중에 본전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몇 배로 이

익이라는 계산이 손쉽게 나오게 된다.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로 의사, 교수 등 우리사회에서 이미 상류에 속하는 기득권층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을 더욱 씩씩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원정출산에 대한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자녀들에게 각종 특혜와 혜택을 주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국적까지 내팽개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과 질시 또한 견잡을 수 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원정출산이 오직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특권계층 노블리스들의(Noblesse) 책임 없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자신을 미국국적이라는 값진 선물을 자녀에게 줄 형편도 못 되는 무능력한 부모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 자식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데 누가 말리겠냐며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 어느 곳보다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라면 이기적인 행동들이 묵인되고 오히려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 이것이 이런 기형적인 원정출산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앞서나가게 키우세요, 라는 문구의 분유광고가 젊은 부모들에게 어필하는 한, 원정출산과 같은 병폐들은 웃을 달리해서 나타날 뿐, 계속해서 우리사회의 얼마 남지 않은 도덕성과 양심, 건전한 사회 윤리들을 야금야금 갉아 먹을 것이다. PPFK